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이 세상을 만든 건 마음…마음의 주인공 돼라”

영하 7도. 혹한의 날씨였다. 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원로회의 의장실에서 의장 자광(慈光) 대종사를 친견하고 고준한 법문을 들었다. 대종사의 법명대로 자비(慈悲)의 광명(光明)이 보는 이의 가슴에 비췄다.

자광 대종사는 가장 먼저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비롯해 불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늘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의 의미는 계절감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봄이 오면 신록이 돋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가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 뒤 조락하고, 겨울이 되면 나목(裸木)이 되는 사계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가는 세월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납승은 ‘공수래공수거’라는 게송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어쩌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는가? 혼신을 다해 쌓아놓았던 것이 천만 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세연이 다해 감에 이 모두가 헛일인 줄 알았네. 무엇을 가져갈꼬. 무엇을 두고 갈꼬. 생각 좀 해보세.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

불자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일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광 대종사가 바라보는 불교의 요체는 ‘인연법(因緣法)’이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바로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하고 받드는 화엄신중(華嚴神衆)은 있으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부모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업보(業報)가 따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행복과 불행,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재까지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노예가 되고 피조물이 됩니다. 불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도윤회를 초월하는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대종사는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진급,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고, 2023년 4월에는 원로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치인들이여 화장터에 가보라

혼돈의 시대,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에게는 경책(警策)의 쓴소리를 전했다. 자광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취임 직후 취임사를 통해 “나라가 혼란하면 원로회의가 따끔하게 경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책은 죽비로 어깨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의미로써 선방(禪房)의 용어이다.

“〈법구경(法句經)〉에 이르길, ‘파초는 열매를 맺으면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지도층은 이 경구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경제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자(孟子)〉에는 ‘기신정천하귀지(其身正天下歸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청정하면 천하가 그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지도자들은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청정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 국민들이 사회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지도자들은 탐욕이 아닌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덕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까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이타행’으로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정치 · 경제계 인사 향한 경책

지도자의 탐심, 사회 어려움 가져와

탐심 생길 땐 화장터 등서 봉사하며

생사가 일여하니 무상함을 알아가라

그러면서 자광 대종사는 탐심을 없애는 비법을 우리 사회지도자들에게 제안했다.

“첫째 방법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도 탐욕이 없어지지 않으면 화장터 인근 장례식장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을 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도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동묘지에 가서 천막을 치고서 일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룻밤을 묵는 게 아니라 천막 안에 앉아서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몸소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다다르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심시도’ 은사스님 가르침

자광 대종사는 은사인 경산 스님(1917~1979)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역설했다. 1960년대 말 경산 스님은 상좌인 자광 스님을 부른 뒤 군승이 되라고 지시했다. 당시 자광 스님은 제대한 뒤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산 스님이 상좌에게 “군승이 돼라”고 지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조계종은 1968년 군승(軍僧) 제도를 마련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조계 종 총무원장으로서 군승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경산 스님은 자신의 상좌부터 군승 파견의 모범을 보이길 바랐던 것이다. 은사스님의 하명(下命)에 따라서 자광 스님은 1970년 임관해 25년 동안 군포교의 일익을 담당했다.

“은사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재임 시 동국대 종비(宗費) 장학생 제도 도입,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등 종단의 숙원 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런가하면 은사스님께서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4년 동안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 용맹정진하시기도 했습니다. 은사스님의 가르침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일상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은사스님께서는 신도들에게 ‘평상심시도’ 휘호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무문관 수행 뒤 은사스님은 ‘도를 통했는가 하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齋(재) 의식의 변화 輩(연) 소형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포교당 사용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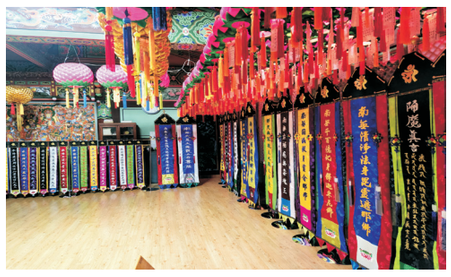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공단자수 (번)幡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한국불교전통의식구 ☎010-8441-6814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